

조용한 환란

New Moon Meeting: October 2006, Part 1: The Silent Tribulation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주제가 중요하므로 마음에 간직하기 바란다. 지금 우리가 약간 다른 체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것이 분리된 두 주제지만, 관련된 논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이 시간에 취급하는데 있어서, 긴 주제를 취급하는 대신에, 한쌍 중에서 짧은 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가르침들이, 둘 다 똑같은 시간에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지난 달에 이 주제를 준비하기 위하여 한 달을 소요한 이유는, 이 문제를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초점을 맞추기 위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도와 함께 시작한다.

근래 있었던 장막절 야영회에 참석한 어떤 방문객들이 짐승의 표와 관련된 대단한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안다. 그들에게 나타난 장해물들 중에 하나는, 어떻게 등록상표 법이 세계적인 규모로 휘저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혹이었다. 그들이 판단하기를, 일요일 준수령은, 큰 규모의 영업에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하여 솔직하게 토론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등록상표 법은, 영업하는 이름들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절대로 종교적인 경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고 한다.

그들이 일요일 준수령이나 등록상표 법으로 "휘저어지는" 원인을 잘못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일요일 준수령이 내린다면, 완전히 대사건이 될 것이다. 고 한다. 그것이 사실이다. 엘렌 화이트 당시, 일요일 준수령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였고, 또 그것이 교회들에게 시험이 될 것을 기대하였지만, 그 법 때문에 그러한 인심의 동요가 일어날 이유가 없었던 것은, 그때, 이미 대부분의 영업소들이 일요일에 문을 닫았으므로, 다만 있는 법을 시행하는 것뿐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등록상표 법이 시험이 되었을 때, 오직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법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고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하였다. 일요일 준수령을 기대하는 재림교인들이 (영감의 기록들에 의하지 않고) 전통적인 사상을 필수 조건으로 택하였으므로, 짐승의 표가 오기 시작할 때, 종교상 큰 이변이 전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식에 가까운 환란이 오지도 않을 것이다 -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백성들 대부분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예언 성취의 필요 조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해 주어도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일요일 준수령을 믿는 완고한 자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굳게 붙들기 위하여, 어떤 가망 없고 불합리한 이론들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테러(폭력) 행위가 일요일 준수령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고 한다, (내가 이것을 한번 이상 들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 - 이슬람교 테러리스트들이 (폭력주의자들이), 오직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다) 더 많이 지지하도록 만들뿐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오늘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무시하고 생각하기를, 주요 UN 기구 제도나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어떤 다른 권력자들이 개조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UN이 독특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성경과 재림교 기록들이 말하기를, 환란은 대체로 작은 그룹의 성도들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이다... 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 대부분 사람들에게 의하여 격렬한 박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세상 조직망의 일부 (즉 재림교)에 의하여, '이는 믿음으로 하늘의 명령들을 지키기 위하여 충실한 편이 되든지 아니면 멸망당하는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하는 것이다. 그것이, 역시 결과적으로 교회 내부에서 영적인 대립이 잇따랄 일어나는 바로 그것을 말한다. 악마들이 지금 남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기 위하여 고발하고 죄의식과 실패자라는 느낌을 갖도록 한다. 이 세상 모든 후원을, 이 교회로부터 제거할 것이므로, 그들이 "구세주처럼 무덤의 문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영문) [The Desire of Ages, Page 753]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전세계적인 규모의 큰 이변이 일어난 것과, 종교적인 큰 이변이 전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차이를 지각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개중에는 "종교적인" 큰 이변이 일어날 것이고 그것이 동요가 되어 널리 퍼질 것이다. 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없다. 이에 대한 의혹이 개중에 있을 것이므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경말씀 몇 구절을 보기로 한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와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계시록 13:11- 14)

위에 있는 성경구절 어디에서 '강요한다' 고 언급하였는가? 그것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구절이 단순히 말하는 것은, 이전에 재림교가 증명한 것처럼, 두 번째 짐승 즉 미국 정부가,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즉, 공경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교황권임을 우리가 부가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미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아무도, 초소 한도의 어떤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오늘날, 미국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회들 모두가 거의 국가에 등록된 종교들이므로, 그들 모두가 종교적인 법인들이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자들은, 로마가 제정한 로마 카톨릭 교회 조직에게 충성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 사람들의 뜻을 적대하고 무엇이든지 강제로 행하게 한다. 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저들을 속여서 경배하게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완전히 무엇인가 다르다.

엘렌 화이트가 기록하기를, "일단 이 원칙이 미국에서 확립되어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거나 지배하게 되고 국법이 종교 행위를 세속적 법률로 강요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이 나라 (미합중국)에서 로마교의 승리는 확실해 진다." [The Great Controversy, Page 581]

그렇다면, 이 나라 (미국)에서 로마가 승리한 것이 확실한가?

지금, 이 조직이 이것을 강제로 설정한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입각하여 교묘하게 설정한 것인가? **Yes** 법에 입각하여 교묘하게 설정한 것이다.

지금 참으로, 교회들로부터 그들의 양심을 강요당한 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첫째 짐승에게 절하고 있다, **Yes**, 왜냐하면 위기가 영적으로 온 것이지, 종교상으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러한 극적인 사건들이 환란의 때임을 극소수가 알아차린 것이다.

표가 형성된 것에 관하여 다음 몇 구절들을 읽는다:

"또 그가 [(U.S) 둘째 짐승이]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계시록 13:15- 17)

위 성경 말씀과 똑같은 사건이 여기 미국에서 일어났다. 그 형상이 표를 받게 하는 "모든 원인"이 된다. 그 표를 강제로 그들에게 준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사용한 단어,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causeth all) 하는 것을, 인간들에게 적용시킬 때, 명확한 의도를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요의 뜻을 내포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나를 책망하는 반격을 내가 들었으니 나의 명철의 영이 나를 대답하게 (causeth) 하는도다." (욥기 20:3)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연고 외에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녀로 간음하게 (causeth) 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혼한 여인과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5:32)

"이제 씨 뿌리는 자에게 씨앗을 공급하시는 분이 너희의 양식으로 빵을 공급하시며, 또한 너희가 뿌린 씨를 번성케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키시리라.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관대한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causeth)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9:10,11)

위 성경 구절들의 사례에서, "causeth"의 단어는, 아주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주변에서 규정한 상황에 따르게 하고, 법적인 권유에 의하여 처신하도록 이끌어서, 단지 현행하는 풍조에 따르도록 촉진시키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자신의 양심을, 교회가 지배하도록 하는 사상에 동의하면, 그 사람은 고대 교황권에게 순종함과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그가 짐승의 표를 (사법권에게 충성한다는 표시) 받은 결과가 된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이마 안에서 그 원칙을 조장하고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에레미야 3:3, 에스겔 3:9) 이 센스 안에서 그 짐승과 똑같은 행동과 움직임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사법권에게 충성하는 "표"를 손에 받고, 그것에 의하여, 그 사람이 인도함 받는다. (시편 73:23, 히브리서 8:9)

그 이유 때문에 기록하였으되,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계시록 14:9,10a) 우리가 "영적으로" 근본적인 개념들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바코드 (상품의 식별을 위한 컴퓨터 판독용 부호)나 전자 마이크로칩에 관한 진술서를 사용하지 않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허용하면, 성경이 실제로 아주 단순한 상징들을 드러낸다.

그러면, 세계적인 위기가 아주 현저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사상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러한 의혹은 위에서 지적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 표는 오직 그것을 저항하는 자들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그 밖에 세상 사람들은 이미 짐승에게 절하는 조건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종교 법인이, 적은 교파 즉, 성경 근본주의 신자들을 박해하는 견해에 대하여서는, 밤중에 나오는 10분 뉴스 단편에 불과하다. 내가 등록상표법의 중요성을 논의할 때, 내 친구에게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을 바로 알고 있었다고 그대가 생각하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친히 그것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고 그대가 생각하는가?"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몰랐다... 그리고 그 작은 사건 하나가, 인간 역사의 코스를 완전히 개조한 것을 그 당시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가 법정 고소에 직면한 상태에 놓여있다, 초기 재림교 가르침에 따르면 **[Selected Messages Book 3, page 299, paragraphs 1-3]**, 그리스도께서 "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영적으로 전세계적인 위기에 이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경말씀의 전통적인 센스 안에서 종교적인 위기가 온 것이 아니라고 하고, 종교적인 범위 안에서 지나치게 많이 주목할 수 있는 어떤 가치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큰 소리" 외침이 필요하다 -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 없을 것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태까지 이것을 통고해 준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개중에는 이것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일을 주변 환경이 우리를 위하여 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소유한 명확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음성을 높여서 항거하고 경고하여, 지상에 인자의 아들이 재림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말라기 4:5,6)

이것을 성경말씀으로 확고하게 입증한다.

우리가 열 처녀의 비유담을 읽는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지므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마태복음 25:3-7)

지금, 이 세상이 큰 소리 외침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만 처녀들이 그렇게 빨리 신랑을 기다리는 것에 불과한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때가 가까움을 실감하고, 오직 영의 식별력을 소유한 자들만이 혼인 잔치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할 때에 아이 벤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니 그 날이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너희는 모두 빛의 자녀들이며 낮의 자녀들이라. 우리는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1-5)

많은 사람들이 이 문단을 사용하면서,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사고 방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야쉬와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대단히 놀랄 것이라고 한다. 이 세상이 아주 놀랄 것이다, **yes**,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자들도 놀라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잔치하고, 마시고, 분별없이 (국가와) 결합하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38) 그러나 "빛의 자녀들"을 "밤에 도둑과 같은 사건"이 갑자기 덮치지 못할 것이다.

그때,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주 가까움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만일 이것을 경고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성도들에게 환란의 때가 시작된 것을 그들이 실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상 그들이 자장가 소리에 의하여 잠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이것을 말하겠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종교적으로 열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적인 이유는, 그 조직이 완력을 사용함 없이, 이미 설정한 (등록상표 이름에) 대한 취지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표는 오직 그것을 저항하는 자들에게만 강요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시,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재림을, 환란의 때에 관하여 그 분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만들어서 악용하는 것이다.

그 분께서 재림하시는 광경을 읽는다: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다." 아멘. (계시록 1:7)

"마치 번가 동편에서 치면 서편에까지 비치는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27)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베드로후서 3:10)

여기에서 우리가 양쪽 개념들을 요약한다. 다가오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조용하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 날이 당도하는 바로 그때, 오직 그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비록 그 날이 다가올지라도, 세상사람들 대부분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극소수가 환란과 환란 자체를 알게 된다는 의미이다: 환란의 때를 겪고 있는 자들이, 환란이 전개되고 있다. 고 알려준다.

물론, 박해자들도 역시 그 사건들에 대하여 알아차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이 가까울 때 재앙들이 떨어지는 것을 반드시 주목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환란임을 그들이 알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단자들과 범죄자들을 확대하는 사고 방식을 가지고, 저들을 전멸시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2) 재난이 자연계의 작용에서 온 것으로 돌릴 것이다... 물론, 그 밖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재난에 대하여 유념하지도 않을 것이다.

"어떻게 재림교인들이 의미심장한 재앙을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가?" 라고, 그대가 말할 것이다. 일찍이 재림교인들이 소유한 마지막 때에 관한 견해를 검토할 때, 때때로 그 말씀들 자체 안에 함축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이 소유한 교리들의 확실한 견해가 손상되었다. 근래 재림교가 발행한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것"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이 책이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예언의 선물의 개념을 완벽하게 부양하기 위하여 추구한 것이다. 저자가 그 주제에 고착시켜서 기록하였으면 그 책임을 아주 잘 완수하였을 것이다. 고 내가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동의할 수 없는 문장 몇개가 있다, 저자가 삼위일체 찬성론의 확고한 사상을 교묘하게 제시한 것은 -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견해가 믿는 자들의 생애에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그 책을 다 읽으면, 그 것을 재검토하고 간결하게, 한 기사로 기록하여 공고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 책에 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한 문단을 인용한다.

그 책 177 페이지에서 신학자 에드워드 헤벤스틀이, 초기 SDA 인물 엔드리슨을 비난한 문단을, 저자가 인용한 것이다. 그 책에서 엔드리슨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그가 1930년경과 1940년경에 의심할 여지 없는 탁월한 성경 학자로서, 엘렌 화이트의 기록들을 중심으로 따르면서 가르치기를, '마지막 세대의 기독교인들이 승천을 위하여 준비할 때까지, 제각기 죄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이다.' 고 하였다." [More Than a Prophet, page 187, quoting a January 1991 lecture at Andrews University by Dr. George Knight]

그의 문장이, 이치에 맞고 우리의 가르침과 아주 가깝다, 그러나 헤벤스틀이 반대한 이유를 주목한다: "그러한 사고 방식을 실제로 지지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 우리가 죄 없이 될 수 없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나 두 주일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가 그리스도와 맺은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고 하였다. [ibid., page 177]

만일 그가 성소 교리를 이해하였고, 지정된 마지막 때 사건들을 올바르게 식별하였다면, 그가 반대한 것이 기초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시험 기간이 끝난 후에 "환란의 때"가 올 것이다, (계시록 22:11) 그리고 야쉬와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일주일 전이나 이주일 전에" 그리스도께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실제로 야곱의 환란이 있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그가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각 사람의 상태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품성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다는 사고 방식은, 알고 있는 죄를 완전히 극복하는 원칙에 대한 결실이 있을 수 없고, 마지막 때까지도 영혼이 정결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 분과 (영문)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 분 그대로 그 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그 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 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한1서 3:2,3)

이 환란이, 비록 세속적인 세상에게 대규모의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시험 가운데 둘러싸였을지라도 단호하게 서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기 전에, 계곡에서 마지막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avid

더 깊은 연구를 위한 웹사이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